

哲學의 確立이라고 하는 次元과 同一 系列의 延長 線上에서 다루려는 것은 이러한 脈絡에 비추어 當然한 歸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參 考 書 籍

1. Alloprrt, Gorddon W., *Personality : A Psychological Interpretation*, New York : Henry Holt and Company, 1837, 1961.
2. \_\_\_\_\_, *The Root of Religion*, Cincinnati : Forward Movement Publications, 1994.
3. \_\_\_\_\_, *The Individual and His Religion*, New York : The Macmillan Company, 1950.
4. \_\_\_\_\_, *Becoming : Basic Considerations for a Psychology of Personality*,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1955.
5. \_\_\_\_\_, *Personality and Social Encounter*, Boston : Beacon Press, 1960.
6. \_\_\_\_\_, *Pattern and Growth in Personality*, New York : Henry Holt Company, 1961.
7. \_\_\_\_\_, *The Person in Psychology*, Boston : Beacon Press, 1968.
8. DiCaprio, Nicholas S., *Personality Theories : guides to living*, Phila. : W. B. Saunders Company, 1974.
9. Chaplin, James P. & Krawiec, T. S., *Systems and Theories of Psychology*,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1968.
10. Hall, Calvin S. & Lindzey, Gardner, *Theories of Personality*, New York : John Wiley & Sons, Inc., 1957.
11. Sahakian, William S., ed., *Psychology of Personality : Readings in Theory*, Chicago : Rand McNally & Company, 1965.
12. Stagner, Ross, *Psychology of Personality*, New York : McGraw-Hill Book Company, Inc., 1927.

## 존 듀이(John Dewey)의 “철학의 개조”에 관한 연구

김 성 수\*

### 목 차

1. 서 론
2. 철학의 기능
3. 과학의 역할
4. 경험과 이성
5. 이상과 현실
6. 논리학의 개조
7. 도덕적 개념의 개조
8. 사회적 개조
9. 고찰 및 결론

### 1. 서론

존 듀이(John Dewey)는 1919년에 일본 동경제국대학의 초청으로 일련의 강의를 하였는데, 이 강의에서 그는 전통적 철학의 제 관념 및 사고방식의 개조를 해명해 보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 강의에서 듀이는 철학의 기본적인 의미와 목적은 사회의 문제로부터 유래하며, 따라서 철학은 고정되고 경직된 것이 아니라 시대의 요구와 더불어 부단히 변화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개진하였다.

듀이가 개진하고자 했던 철학의 기본적 원리는, “철학의 독특한 임무와 문제, 그리고 내용은 공동사회생활에서의 고뇌, 긴장, 불안에서 싹터나와 거기에 한 형태의 철학을 일어나게 한다는 것, 따라서 언제나 전진하는 인간생활의 변천, 때로는 위기와 인간역사의 전환점을 조성하는 인간생활의 변천에 따라 철학의 특정한 문제들도 변천해 간다”는 것

\* 교수(기독교교육과)

이었다.<sup>1)</sup> 듀이의 이러한 사상기저에는 과학의 효용성에 대한 그 자신의 강한 신념이 깔려 있는데, 그것은 과학이 인간의 문제를 영구히 해결한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인간문제 해결에 대한 탐구방법을 제공해 준다는 의미에서이다. 지금까지 인간의 물질적 풍요를 가져오는데 그렇게도 성공적이었던 과학적 방법은 인간의 도덕적, 정신적 문제를 해결한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성공적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sup>2)</sup> 요컨대, 듀이 자신이 옹호한 “개조”(reconstruction)란 철학에 있어서 실험주의(experimentalism)의 적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 2. 철학의 기능

듀이에 의하면 인간이 하등동물과 다른 것은 과거의 경험을 보존한다는 데에 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과거 그 자체 때문에 상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현재에 보태주는 바가 있기 때문에 상기하는 것이다.<sup>3)</sup> 원시적인 기억의 생활은 지적, 실제적이기 보다는 주로 감정적이다. 야만인이 어제 야수와 싸웠던 것을 상기하는 것은 그 야수의 성질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거나 또는 내일 좀 더 잘 싸울 방법을 계획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제의 스틸을 다시 느낌으로서 오늘의 일 없는 권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이다. 그 기억은 격투에서의 실제적인 위험이나 어려움을 반복함이 없이 경험을 대리적으로 회상하게 해 준다. 현재에 감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건만을 선택하여 기억을 통해 재연함으로써 더욱 극적인 어떤 가치가 발전하게 된다. 예컨대, 야만인에게 있어서 전투의 승리감은 승리의 그 순간에서 보다 승리축하무도회에서 더 한층 강렬하다.

인간이 그의 과거의 경험을 되살리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허하게 될 현재의 여가에 대한 관심 때문인 까닭에, 기억의 원시적인 생활은 정확한 회상의 생활이라기 보다 환상, 상상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인간은 일을 하지 않고 혼자있을 때나 또는 생존경쟁의 복판에서 투쟁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공포와 희망, 사랑과 증오, 꿈과 욕망 등 감정이 적재되어 있는 기억의 세계속에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듀이에 의하면 이러한 극적이며 시적인 관념과 암시, 상징들로부터 인류의 신앙과 전통이 성장하며, 나아가 이러한 신앙과 전통에서부터 다시 철학이 발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원자료(原資料)가 철학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 신앙(설화)이나 전통(전설)이 집결 정리되어야 하고, 사회적 유산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하며, 자연에 대한 관찰 가능한 사실들과 조화되어야 한다. 원시부족들은 맨 처음에 의식적인 행사의 경우에서 불을 초자연적인 용(dragon)으로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다루고 본즉 이런 신앙개념은 생활의 대부분의 시간에서 축출되고, 불은 이제 인과의 실제적 관계를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평범한 현상이 된다.

따라서 듀이에 의하면 지식과 기술공예가 발전해 감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초자연적인 신앙은, 계속적으로 심화되어가는 양자 즉 지식(기술공예)과 초자연적 신앙간의 양립불가능성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듀이에 의하면 문화의 이와같은 두 측면이 분리될 수 있는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 두 가지의 정신소산은 그들이 각각 상이한 두 사회계층의 소유가 되기 때문이다. 전통적, 종교적, 상징적인 신앙은 확실한 사회적, 정치적인 가치와 소용(所用)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의 지배적 분자와 직접 관계가 많은 상류지배계층의 소유가 되었다. 기술적 지식과 수공기술, 실제적인 일의 습득 등은 하류사회계층, 흔히 봉사계층이 차지하였다. 예를들면, 신발공의 지식은 국가통치의 기술과 동일한 차원에서 고려될 수 없으며, 육신을 고치는 의사라는 좀 높은 기술일지라도 그것은 영혼을 치유하는 사제의 기술과 동일한 차원에 들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플라톤은 그 대화편 속에 끊임없이 대조를 들고 있다.<sup>4)</sup>

구두장이는 좋은 구두와 나쁜 구두의 판단자이다. 그러나 언제 구두를 신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좀더 중요한 문제에서의 판단자는 도저히 못된다. 의사는 건강의 좋은 판단자이다. 그러나 나아가 옳으나 죽어야 옳으나에 관하여서 그는 아는 바가 없다. 순전히 한정된 기술적 문제에 한하여서는 직공 기술자가 전문가이지만, 문제가 가장 중요한 유일한 문제 즉 가치에 관한 도덕적 문제에 이르게 되면 그는 무능하다. 따라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본래 저급한 것으로 궁극적인 목적, 이념을 밝혀주는 고등한 지식에 의해서 통제될 필요가 있으며, 이렇게 해서 기술적, 기계적 지식은 그 마땅한 자리에 묶어두어야 한다.

그러나 지식이 더욱 더 확대되고 과학에서 이루어진 진보가 더욱 정교화, 실증화되어 감에 따라 전통적 신앙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래서 이 전통적 신앙을 지지하고 보강하기 위해서, 요컨대 과학과 전통적 신앙을 융합시키기 위해서 고전적 철학이 태동된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중세철학자들에 의해서 발전된 것은 존재와 우주에 관한 형이상학인데, 이것은 전통을 보다 고등한 도덕적 수준에 뚫으로서 전통을 순화시키는 것이다.<sup>5)</sup>

…인간은 사물의 원인을 캐내어야 하며, 관습이나 정치적 권력하에서 그대로 사물을 받아들일 것은 아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했는가? 합리적인 연구와 증명의 방법을 만들어라—그래서 그것으로서 전통적 신앙의 골자를 부동의 기초위에 안치하라. 사고와 지식의 방법을 만들어라—그것으로서 전통을 순화하되 그 도덕적, 사회적 가치는 그대로 다침없이 보존하라. 아니 도리어 전통을 순화함으로써 그 권력과 권위를 더 증대하라. 한 마디로 말하여 관습을 기초로 하는 모든 것은 그대로 보

1) John Dewey, *Reconstruction in Philosophy*, Boston : Beacon Press, 1957, pp. v-vi.

2) Harry M. Campbell, *John Dewey*, New York : Twayne Publishers, Inc., 1971, p.57.

3) John Dewey, *Op. Cit.*, pp. 1-2.

4) *Ibid.*, p.15.

5) *Ibid.*, p.17.

존되어야 했고, 다만 과거의 습관이라는 기초위에서가 아니라 존재와 우주에 관한 형이상학 그 자체의 기초위에 보존되어야 했다. 형이상학은 고등한 도덕적, 사회적 가치의 자원이나 보장자로서 관습의 대응이 된다—이런 것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된 구라파의 고적적 철학의 주류가 된 주제이다—이런 철학이 중세구라파의 기독교적 철학에 의해서 다시 재생되고 재진술되었다는 것도 항상 상기해야겠다.

이런 사태에서부터 철학의 기능과 임무가 생겨나왔다. 즉 본래의 신앙, 전통적 관습의 형태는 아니라도 그 정신을 합리적인 기초위에 정당화 하는 것이 철학의 과업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합리론적 접근은 전통적 신앙의 정신은 보존하고, 그 본래의 형식은 거절함으로써 명백하게 구식이며 잘못된 것은 제거한다. 그러나 이 접근방식은 듀이에 의하면 여전히 어떤 기본적인 결함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과거에 대한 집착과 어떤 선입견이 있는 신앙이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집착이다.<sup>6)</sup>

철학의 이러한 변증적 정신은 12세기경의 중세기독교사상에서 더 한층 분명하게 나타나 있으며, 그 때 기독교는 그 자신의 체계적, 합리적인 서술방법을 찾았고, 기독교를 이성애 맞추어 정당화하기 위하여 고전철학,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이용했다. 비슷한 현상이 19세기초의 독일의 주요 철학체제를 특징짓고 있다—그 때에는 헤겔이 과학과 민주정치라는 새로운 정신으로 위협당하고 있는 사상과 제도를 합리적 이상주의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일을 떠맡았던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식과 정신은 철학에 다음과 같은 삼중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듀이는 보고 있다. 첫째는, 어떤 편견적 신앙에서 시작하면서도 합리성과 지적독립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불성실이라는 요인을 철학속에다 자꾸 주입해 넣는 일이다.

둘째는, 권위에 의해서만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신앙의 진리, 또한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도 없는 신앙의 진리를 확신시키기 위해서 전통적 철학은 머리카락을 쪼개는 것과 같은 세부적인 사변적 논증과 교묘한 술어의 진열등에 몰입하는 특색을 띄게 되었다.<sup>7)</sup>

철학이라는 것이 감정적 친근성, 사회적 권위로 인해 과거부터 인정해 온 여러 사물을 합리적으로 정당화하는 일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철학은 필연 이성과 증명이라는 기구를 최대한 중요하게 여기고 활용할 수 밖에 없었다. 철학이 다루는 사항에 참된 본질적 합리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철학은 말하자면 대신 논리형의 시위행열에 의존했다. 사실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경우에는 간단하고 거치른 증명방법을 쓸 수 있다. 문제되는 사실을 보이면 되고 문제되는 논점을 밝히면 되는 셈이다—

6) *Ibid.*, P.19.  
7) *Ibid.*, pp.20-21.

이것이 결국 모든 논증의 기초적인 형태이다. 그러나 관습이나 사회적 권위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덮어놓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상학설, 또한 경험적으로 실증도 할 수 없는 사상학설의 진리를 설득하는 문제에 이르러서는 엄밀한 사고와 격식에 맞춘 논증의 표시를 확대할 도리 이외는 길이 없게 된다. 이리하여 추상적 정의와 초과학적인 논변이 출현했으며, 이것이 많은 사람을 실증나게 하여 철학에서 멀어지게 하는데, 철학을 파고 드는 사람에겐 도리어 이것이 주요한 매력이 되어 왔다.

최악의 경우, 이것이 철학을 교묘한 술어의 진열, 사소한 일에 사로잡히는 논리, 종합적이며 세부적인 논증의 외면적 형태에만 가상적인 열증을 일삼는 일로 떨어지게 한다.

여기에 덧붙여 이런 철학들은 철학이 과학보다 더욱 더 과학적이며 궁극적이고 완전한 진리의 전달자가 된다고 주장해 왔다.

셋째는, 가장 심각한 결과로서, 이러한 철학은 형이상학적 영역을 일상세계의 실제적인 일들과 분리시킴으로서 우주에 대한 이원론적 개념을 지지하였다. 한편에 있어서는 지고(至高)의 궁극적인 실재의 세계가 존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완전하고 일상적이며 일시적, 상대적인 경험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철학의 고전적 개념은 철학에다 실증적인 과학이나 보통의 실제적 경험을 압도하는 초월성 즉, 최고의 중요성을 띄며 보다 높은 지식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는 초월성을 철학에다 귀속시켰다. 이 특징이 철학의 본질에 관한 고전적 개념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었다고 듀이는 생각하였다.

따라서 듀이는 철학의 발달사를 한 고립된 것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학적, 역사적 견지에서 연구하기 시작한다면, 철학이란 어떤 지적 재료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감정적인 상황에서부터 발생한 것임을 볼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 실재의 본질에 관한 논쟁이나 일상경험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것에 대한 사색, 또는 “물 자체”(things-in-themselves)를 이해하려는 순전히 사색적인 노력 대신에 철학의 참된 의의는 사회적 목적과 갈등, 그리고 실제적인 문제에 인간지성을 적용시키는데 있다고 듀이는 보고 있다.

철학을 이와 같은 방식에서 보게될 때, 미래에 있어서 철학의 기능은 전통적 제도와 그것에 양립할 수 없는 현대적 발달간의 갈등을 다루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철학이 형이상학이라는 특수한 형태로 구성될 때에는 허무하게 비현실적인 것이 되고 만다. 그러나 철학이 여러 사회적 신앙과 이념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제 국면과 관련될 때에는 강한 의의를 갖게 된다고 듀이는 강조한다.<sup>8)</sup>

궁극적, 절대적인 실재를 다루는 좀 무용무익한 전매특허를 버리는 철학은 인류를 움직이는 도덕적 동력을 찬란하게 빛내고, 보다 질서있고 지적인 행복을 얻으려는 인간의 열망에 공헌함으로써 그의 큰 임무와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8) *Ibid.*, pp.26-27.

### 3. 과학의 역할

다음으로, 듀이는 현대생활의 정신 문제에 주의를 돌리고 있는데 이 현대정신은 17세기 초에 '지식은 힘이다'고 하는 베이컨(Francis Bacon)의 신념에 기원을 두고 있다. 베이컨은 과거로부터 유래되어 오는 고전적 논리와 진리를 독단적으로 가르쳐 놓고 순종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지 않고, 도리어 새로운 경험의 검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옹호하였다. 귀납적 방법과 자연에 대한 직접적 관찰을 옹호함으로써 그는 과학에 있어서 엄청난 진보의 길을 여는데 도움을 주었다. 베이컨에게 있어서 그는 과학에 있어서 엄청난 진보의 길을 여는데 도움을 주었다. 베이컨에게 있어서 참된 지식의 검증과 목적은 계속적으로 갱신되는 사회진보이다. 철학에 대한 이와같은 새로운 접근은 다음 세기에 굉장한 산업적, 정치적, 사회적 진보를 가능케 하였다.

이와같은 엄청난고도 광범위한 변화는 네 가지의 중요한 발전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sup>9)</sup>

1) 영원하고 보편적인 것에서부터 특수하고 구체적이며 변천하고 있는 것에서의 관심의 전환이다. 중세의 특징이었던 초자연주의와 내세에 대한 관심이 자연의 사물, 현세, 그리고 과학에 대한 관심으로 대치되었다.

2) 고정된 제도와 계급격차에서 오는 권위의 점차적인 쇠퇴, 그리고 이와 함께 자유로운 탐구정신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경험이 가치와 타당성의 궁극적인 기준이 되었다.

3) 과거보다는 미래에 대한 강조, 그리고 진보의 관념에 대한 강조가 있었다.

4) 자연에 대한 실험적 연구를 통한 진보의 성취와 그것을 사회적 목적에 적용시키는 발전이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를 통해서 발전한 철학은 베이컨이 설정한 방향으로 충분히 나아가지 못하였다. 초기의 철학은 세계를 창조하고 구성하는 것은 이성이라는 옛 전통개념을 유지하였지만, 이 이성은 인간의 정신을 통해서 작용한다는 생각을 견지함으로써 고전적이고 중세적인 사고방식과 결별하는데 성공하였다. 이것은 17, 18세기의 모든 철학에서 반향되어 나온 이상주의의 공통점이다. 이상주의는 형이상학적, 우주적이기를 멈추었고 인식론적, 개인적인 것이 되었다. 이상주의는 전통적인 형이상학에 기초를 두는 대신 인식론에 기초를 두게 되는 변천의 결과가 나타났다. 여기서 듀이는 철학이 전환의 시점을 맞게 된다고 보았다. 전통은 너무도 강력하여서 인간의 정신이 현재적인 힘에 완전하고 자유로운 반응을 하는데 제한을 가했으며, 관념과 사회적 실재를 재 형성하는 수단으로서 실험적 행동의 개념을 적용하는 일에 제한을 가했다. 근본적인 철학개조는 지성을 사물의 창조자나 궁극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유목적적인 사회적 행위를 통한 세계의 재 형성자, 재 창조자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듀이에 의하면 철학의 개조를 가능케 하는 것은 과학이다. 과학은 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관념의 지성적 도구를 제공해 준다. 현대과학은 그 다양성과 범위에 있어서 끝이

9) *Ibid.*, pp.47-49.

없는 세계를 열어보여 주고 있다. 우주를 정적이고 고정된 것으로만 보는 독단, 종(種)의 불변을 주장하는 독단, 집단이나 유목(類目)에 대한 개체의 종속이라는 독단이 흔들리는 것과 같이 우리는 도덕적, 사회적 생활에서도 이와 유사한 독단을 포기해야 한다고 듀이는 주장한다.<sup>10)</sup> 인간은 변화와 불확실성이 궁극적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는 세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철학과 교육의 책임은 이러한 변화를 다룰 수 있는 인간의 경향성을 배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sup>11)</sup> 이 단계를 이룩할 때 철학의 개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 4. 경험과 이성

듀이는 계속해서 전통적인 철학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험이 왜 새로운 철학의 열쇠가 되는지를 설명한다. 고전주의자들이 경험을 거절한 이유는 이들에게 있어서 경험이란 관념의 방법이 아니라 시행착오에 의한 학습방법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경험은 따라서 학습의 좀 저급하고 덜 정교한 형태인데, 그 이유는 경험은 보편적, 필연적, 원칙적으로 들어맞는 것이 아니라 흔히 대개의 경우 통칙으로만 들어맞는 것 즉, 항상은 지지될 수 없는 상식적 지식과 일반화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고전적 철학자들에 의하면 난관은 보다 나은 경험에 의해서 수정될 수 있는 어떤 부적절한 경험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경험이라는 그 자체가 결함이 있다고 보았다. 이들은 보다 높은 수준의 지식에서, 다시 말하면 경험을 초월한 보편적이며 확실한 어떤 것에서 진리를 추구하였다. 그래서 이들은 이성으로 돌아갔다. 심지어는 지식은 구체적인 경험에서부터 유래한다고 믿는 록크(John Locke)와 그의 추종자들의 경험주의에서 결함을 발견한 일부 현대철학자들까지도 합리적 이상주의에 의거하였다. 이들은 주장하기를 경험에 어떤 결함과 관련이 없는 원칙을 제공하고, 과학과 도덕상의 의미를 경험에 부여하기 위해서 이성은 본질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듀이는 이제 경험의 새로운 개념과, 이성과 경험과의 새로운 관계, 혹은 더 정확하게는 경험에서의 이성의 위치에 관한 새 개념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인이 이것을 가능하게 해 준다는 것이다. 그 첫째 요인은, 경험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해 주는 과학적 심리학의 발달이며, 또 다른 하나의 요인은, 경험의 본질 자체에서 발생한 변화이다.

1) 최근까지도, 감각기관은 감각을 수용하고 그것들을 정신에 독립적이며 수동적으로 전달해 주는 지식의 문이며 통로라고 믿었다. 이 과정에서 획득한 지식에서부터 감정이 따라오며 행동의 의지가 따라 온다고 보았다.<sup>12)</sup>

10) Arthur G. Wirth, *John Dewey As Educator*,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66, P.19.

11) John L. Childs, "The Civilizational Functions of Philosophy and Education." Douglas E. Lawson and Arthur E. Lean ed., *John Dewey and The World View*, Carbondal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1964, P.3.

12) John Dewey, *Op. Cit.*, p.84.

우리는 금일해야 겨우 18,9세기를 통해서 철학을 지배하였던 심리학이 얼마나 완전히 논파되고 있는나를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 그 심리학의 이론에 의하면, 정신 생활은 서로 분리되어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여러 감각들에서 발생하는 것이었으며, 그것들이 기억과 연상의 법칙에 따라 심상, 지각, 개념의 혼합모형으로 형성되어가는 것이었다. 감각기관은 지식의 문이며 통로로 생각되었다. 원자적인 감각들을 결합시키는 이외에는 정신은 인식에서 전적으로 수동적이며 묵인적이었다. 의지, 행동, 정서 및 욕망은 감각과 심상의 뒤에 오는 것이었다. 지적, 인식적 요인이 처음에 오는 것이고, 정서와 의지적인 생활은 개념이 쾌락 및 고통의 감각과 연관되는 결과일 뿐이다.

그러나 보다 새로운 생리학적 이해의 결과로서 현대 심리학은 완전히 상반된 견해를 주장한다. 행동은 끊임이 없는 연속적인 것이며, 생명이 지속하는 한 환경에 대한 유기체의 계속적인 적응이 있어야 한다. 이 적응은 전적으로 수동적인 것이 아니다. 유기체는 환경을 변용하며 이와 반대로 환경도 유기체를 변용시킨다. 예컨대, 심지어는 조개마저도 환경에 작용하며, 어느 정도까지는 그것을 변용한다. 먹을 것을 고르고 보호해 줄 껍질을 고른다. 그 자신에게도 어떤 일을 하지만, 동시에 환경에게도 어떤 일을 해 들어간다. 생물치고 조건에 다만 순응만 하는 생물이란 없다. 생명의 형태가 고등하면 고등 할수록 환경의 재 구성도 더 크다.

행동에 대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전통적 경험관은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유기체는 외부로부터 그 자신에게 작용해 올 그 무엇을 수동적, 비활동적으로 기다리고 있지는 않는다. 유기체는 그 주위 환경에 계속적으로 작용하며 반응한다. 그리고 그 자신의 행동결과의 응수를 끊임없이 받고 겪고 한다. 이 경험은 “행동함”(또는 행동)(doing)과 “행동당함”(또는 수동)(undergoing)사이의 밀접한 연결의 결과이다. 비연결적인 행동이나 비연결적인 수동은 어느 쪽도 경험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만약 어린아이가 자기 손가락을 불에 집어 넣었다고 할 때, 그 행동은 우발적이며 무목적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는 있다. 아들은 불에 데이는 고통을 겪는다. 불에 손을 집어 넣는 행동과 화상, 행동함과 수동적으로 당함은 상호연결되어 있다. 왜냐하면 하나가 다른 하나를 연상케 하고 의미를 주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듀이가 말하는 경험이다.

이러한 경험개념은 철학에 아주 중요하다. 지식은 어떤 격리되고, 자기 충족적인 것이 아니라 그 발생기원으로 보아 파생적이며 이차적이다. 그것은 유기체와 환경간의 상호작용이라는 생활과정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감각기관은 이제 인식의 문(gateway)이라기 보다 행동에 대한 자극으로서의 위치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경험론과 합리론간에 존재했던 감각기관의 지성적 가치에 대한 모든 논쟁은 의미가 없게 된다. 합리론자들은 감각 그 자체는 지식의 참된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부정한 점에서 옳았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이유에서였다. 감각은 지식의 어떤 부분이 아니며, 가치에 있어서 반성적 사고보다 열등

하거나 우수한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인도하는 탐구행위를 일으키는 자극이며, 반성과 추리작용을 일으키는 자극이다. 경험론자들은 감각은 지식의 시작이 된다고 주장함에 있어서 옳았다. 그러나 다만 경험된 변화의 충격이 결국에 가서는 지식을 산출하는 탐구와 비교를 자극하고 유발시킨다는 점에서만 지식의 시작이 된다.

철학은 더 이상 감각적 지식의 분리된 요소를 결합시키기 위해 합리적, 초자연적, 초경험적 종합을 찾으려는 희망없는 과업에 관심할 필요가 없다. 참된 경험은 그 자체내에 연결과 조직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참된 경험은 적응적인 행동의 과정, 행동과 수동의 연결, 그리고 감각운동 조정작용(sensory-motor coordinations)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경험내의 조직적 요인으로서 지성의 역할을 인정한다. 이 모든 것과 함께 심리학은 어떻게 사회적 조직이 경험의 형성에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신생아의 무력함과 타인에 대한 의존성은 자연적 환경에 대한 그의 접촉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매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이 어린애가 가져야 할 경험을 결정하며 그 의미를 그에게 가르쳐 준다. 그래서 당시 사회의 확립되어 있는 신앙과 행동양식들은 아동이 나중 커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개인적, 자의적인 통제를 발전시킬 수 있기 오래전에, 이미 해석과 평가의 원칙이 되고 만다. 이와 가이 사회적으로 획득된 신앙들은 아동이 그 자신의 개인적인 여러 탐험과 지각들을 질서짓는 중핵을 제공한다.

2) 오늘날 경험의 의미는 과거와는 다르다. 이전에는 인간은 그의 경험의 결과를 다만 차후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든지 혹은 맹목적으로 파괴하든지 해야 했던 관습을 형성하는데만 사용해 왔다. 그러나 듀이는 이제 경험을 실험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옛 경험은 새롭고 보다 개량된 내일의 경험을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과 방법을 시사하는데 유용하다. 따라서 경험은 자율적이 되며, 이러한 점에서 경험은 그 자체의 개선을 수반하고 있다.<sup>13)</sup>

우리는 다만 과거를 반복하거나, 우리에게 변화를 강요하는 우발사건을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보다 나은 내일의 경험을 건설하기 위하여 과거의 경험을 새롭게 사용한다. 이렇게 경험이라는 사실 그 자체는 그 자신의 개선으로 그 자신을 지도하는 과정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성과 과학은 위에서부터 아래에 있는 경험에 덮어씌우는 어떤 것이 아니다. 이성을 경험과 유리된 어떤 것으로, 또한 보다 우수하고, 보편적인 진리에로 우리를 인도하는 어떤 것으로 더 이상 보지 않는다. 과학은 경험을 확대하고 풍부하게 하는 도구가 된다.

과거의 경험은 현재의 필요와 결합에 비추어 정련된 구체적인 암시들을 제시하며, 특정한 재 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된다. 이 암시들의 가치는 그것들이 가치있는 재조정의 과업을 성취하는데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것은 경험을 실험적이며 건설적인

13) *Ibid.*, pp.94-95.

양식으로 사용하는 과정이 지성이라는 사실을 다르게 말하는 방법이다. 이제 이성은 새로운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성이란 과학적 방법을 추종하며 사회적 목적을 위해 봉사하는 실험적 지성으로서, 그것은 인간을 관습으로 굳어져버린 무지와 노예적인 전통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며, 보다 나은 미래를 지향하도록 도와준다. 듀이에 의하면 인간이 형성하는 계획들, 인간이 개조적 활동의 안내자로서 발전시킨 계획과 원칙들은 현재의 경험을 지도하는데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 폐기, 시정, 확장, 유지되는 작업가설(working hypotheses)이다.<sup>14)</sup> “지성은 한번 소유하면 그만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계속적인 형성의 과정에 있으며, 그것을 보유하려면 결과를 관찰하는 꾸준한 예민성과 배우려는 개방적인 의지와 재조정의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sup>15)</sup>

따라서, 요청되는 것은 두 가지 주요 학파 즉, 인위적이며 무력한 이성의 개념을 옹호하는 학파와 빈약하고 동강이 난 경험을 옹호하는 학파간의 갈등을 제거할 수 있는 철학의 개조라고 듀이는 보았다. 듀이에게 있어서 철학의 개조는 18세기와 19세기에 진보주의와 자유주의의 이름하에서 발전된 반 사회적, 반 인간적, 분열적 개인주의를 일소할 수 있는 것이다. 과거의 경험과 미래를 내다보는 지성이 조화속에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성적 분위기를 확립함으로써 철학의 개조는 과거와 기존제도를 존중하는 사람들과, 보다 자유롭게 행복한 미래를 건설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사이의 협동적 노력을 가능케 해 줄 것이라고 듀이는 보고 있다.

## 5. 이상과 현실

듀이가 옹호하는 있는 철학의 새로운 접근은 이상적 실재와 일상경험실재간의 갈등을 종식시키는 일을 포함하고 있다. 고전적 학파는 궁극적인 최상의 실재라는 관점에서 본질상 이상적인 것을 생각하였다.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인들은 신(神)들을 자기들의 속성과 성취의 이상적인 투사로서 생각하였다. 따라서, 참된 실재는 고정되고 불변하는 것이며, 순수지식은 그 자체 완전한 것이었다. 따라서 명상적 지식은 실용적 지식보다 우월하며, 이론적 사색은 실험보다 우월하다고 보았다. 다시말해서, 철학은 사고의 최고형태이며 이상적 존재(Ideal Being) 또는 순수정신(pure Mind)에 대한 추구이다. 이러한 지식은 예컨대 나무나 들을 가지고 변화를 일으켜야 하는 직공(craftsman)들의 일, 즉 일상적인 지식보다는 훨씬 우월한 것이었다. 실제적이며 실용적인 일들, 사물의 조건을 향상시키는 노력, 정치적, 경제적 문제등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 자체 이외의 어떤 목적에 대한 수단이며, 따라서 이상적 실재보다는 열등한 것이다.

그러나, 현대사상에 미친 과학의 영향과 실험이나 지성적으로 작용시키는 어떤 행동(doing)에 대한 강조로 말미암아, 변화를 더 이상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14) Adrian M. Dupuis and Robert B. Nordberg, *Philosophy and Education: A Total View*, Milwaukee: The Bruce Publishing Company, 1964, pp.185-191.

15) John Dewey, *Op. Cit.*, pp.96-97.

불완전이나 실재로부터 일탈의 증거로서 생각하지 않는다. 현대과학은 계속적인 변화를 가정하고 있으며, 세계와 그 세계안의 모든 것은 변화를 거듭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사물을 사물 자체가 아니라 그 사물을 가지고, 또한 그 사물에다가 무엇을 작용시킬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sup>16)</sup>

요컨대, 변화는 우아에서 타락으로나 혹은 실재로부터의 벗어남, 존재의 불완전의 상징으로 생각되지는 않았다. 현대과학은 각 변화과정의 배후에 어떤 고정적 형상이나 본질을 찾으려 하지는 않게 되었다. 도리어 실험적 방법은 의견상의 고정성을 깨뜨려 부수고 변화를 유발하려고 한다. 감각에 변화를 보이지 않는 형상, 씨앗과 나무의 형상은 사물에 관한 지식에의 관건이라고는 간주되지 않고 도리어 깨뜨려 부수어야 할 장벽, 장애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과학인들은 무엇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까지 즉 우리가 말하는 바 어떤 동작이 있을 때까지 이 요인, 저 요인을 이 조건, 저 조건에 적용해 본다. 그는 변천은 언제 어느 때나 진행되고 있다는 것, 의견상 정지상태에 있는 모든 사물 속에 운동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은 지각에게서 은폐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은 사물을 새로운 상태 속에 변화를 나타낼 때까지 집어넣어 보는 길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요컨대, 수락해야 하고 또 배려해야 할 사물은 처음 주어진 그대로의 사물이 아니라 사물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기 위하여 그 사물을 여러 가지 다양한 상태하에 두어본 후에 나타나는 바 그것이다.

예컨대, 목수는 무엇을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은 그가 “있는 그대로”의 나무를 수동적으로 알기 때문인가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목적에 따라 그 나무를 적극적으로 조작함으로써 나무의 속성을 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사물이란 “그 사물이 할 수 있는 바 그것이며, 그 사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바 그것이다”<sup>17)</sup> 환경은 이제 인간적 용도를 위해 변화 적용되어야 하는 어떤 것으로 간주되며, 인간은 자연을 향하여 새롭고 공격적인 태도를 발전시킨다. 변화는 진보와 연관되어 있고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므로 듀이는 철학 역시도 이제는 실제적이며 실험적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저급의, 공리주의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인간경험의 가능성을 합리화하는 일을 의미하는 관점에서이다. 지식은 가설의 인도를 받는 과학적 실험과 같이 능동적이며 조작적인 것이 되었다. 이렇게 함으로서 철학은 이제 시대의 사회적, 도덕적 난제를 해결하는데 전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악의 원인들을 제거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발전시키는 데 전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에 인간의 과학적 변혁의 결과는 기술공예의 진보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제적인 문제와, 정치, 교육, 예술, 노사관계 등 사회도덕의 총체에 적용될 수 있다고 듀이는 보고 있다.

16) *Ibid.*, pp.113-114.

17) *Ibid.*, p.115.

## 6. 논리학의 개조

실험적 철학은 논리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만약 지성을 유의적(有意的)인 경험개조의 수단으로 본다고 하면, 이 때에 사고의 방법인 논리학은 그것이 취급하는 내용의 진리여부와는 무관하게 형식적으로 정확한 추리의 법칙에만 한정될 수 없다. 논리학은 또한 실패를 피하고 성공으로 인도하는 사고의 방법을 발전시킴으로서 개조의 효과를 증진시켜야 한다. 경험은 다만 인간이 어떻게 사고하는가를 말해주고, 반면에 논리학은 인간이 어떻게 사고해야 하느냐에 관한 규범이나 방법을 제공해 준다는 생각은 성립될 수가 없다. 듀이에게 있어서 논리학은 경험적인 기초를 가지며 실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깊은 인간적 중요성을 지니는 문제인 것이다.<sup>18)</sup> 이 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류는 우리가 사고를 관찰과 분리시키려고 노력할 때 발생하는데, 새로운 사실의 관찰을 그 자체의 일 부분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머리속에서만 진행되는 어떤 것으로 사고를 취급할 때 발생한다. 그것은 자신들의 사고를 구체적인 적용에 의해서 결코 검증해 보지 않는 “사색가”의 일 부류를 형성하며, 이론과 실천의 분열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듀이는 보았다.

한편으로, 경험개조의 방법으로서의 사고는 유목적적이며 구체적이다. 그것은 문제를 규정하고 곤경을 지적해 내며, 곤란이 무엇이며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명석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사실의 관찰을 이용한다. 모든 지적사고는 우연과 무익한 일, 운명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 준다. 그것은 우리에게 행동의 자유를 제공해 준다. 지적사고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자유로운 탐구를 증진시키고 그 자체의 결과에 의해서 검증될 때 완전한 의의를 갖는다.

사고의 타당성과 가치는 환경을 재 조직하는 과업의 성공과 실패에 의해서 결정된다. 만약 그것이 혼동이나 결함을 제거하는데 실패하거나 그것들을 더 증대시킨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만약 어떤 사고가 혼동이나 결함을 제거하고 환경을 재 조직하는 목적에서 성공한다면 그 때에 그 사고는 타당하고, 선하며, 진실되다. 듀이에게 있어서 부사인 “진실하게”는 그것이 행동의 양식을 표현하기 때문에 명사인 “진리” 혹은 형용사인 “진실한” 보다도 더 근본적이다. 어떤 계획의 가치는 그것이 어떤 목적으로 진실하게 인도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으로부터 그릇되게 멀어지게 하는가 하는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질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인식해야 할 것은 진리의 의미는 협의적인, 개인적 유용성이나 어떤 특수한 인간이 마음에 두고 있는 어떤 이익을 위한 유용성에 제한되지 않는다. 예컨대, 한 고속도로의 유용성은 그것이 어떤 노상강도의 목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의 정도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용이하고 효율적인 공공수송과 유통의 수단으로서의 기능성을 어떻게 잘 발휘하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18) *Ibid.*, p.138.

## 7. 도덕적 개념의 개조

듀이에게 있어서 실험적 기질과 방법은 과학적 합의점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합의점도 함께 공유하고 있다. 듀이의 실험적 철학은 윤리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sup>19)</sup> 그것은 어떤 최상의, 궁극적, 최종적, 고정된 목적이나 선에 기초를 둔 도덕의 개념을 거절한다. 그 자리에 실험적 철학은 변천하며, 움직여 나가며, 개별화되는 여러 목적과, 개별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는 여러 선의 다원성의 개념을 확립시키고 있다. 듀이에게 있어서 도덕은 이제 지성의 문제가 된다. 판단과 선택은 행동에 선행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어떤 상황의 의미는 자명한 것이 아니라 탐구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거기에 갈등하는 욕구와 대안적 선택들이 있는 이상 정당한 행동진로를 발견하고, 정당한 선을 발견하기 위해서 반드시 다음 단계를 취해야 한다. 즉 탐구와 상황에 대한 관찰, 제 요인의 분석과 명료화, 각 요인에 적절한 비중부여, 시사되어 나오는 여러가지 행동양식의 결과 추적, 실제적 결과가 경험될 때 까지 가설적인 것으로 도달된 결론에 대한 고려 등이다. 이것은 지성적인 탐구이며, 도덕은 이와 같은 결정 과정에 집착하는 능력이나 의지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요컨대, 듀이는 자연현상에 관한 판단을 내리는데 안전성, 수구성, 다익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증명된 그 논리를 도덕적 반성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듀이에 의하며 우리는 일반적으로 건강이나 부, 학식, 정의 등을 성취할 수 없다. 행동은 항상 특수적이며 구체적이다. 어떤 사람이 건강이나 정의를 추구할 때 그는 사실상 건강하게 또는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리와 마찬가지로 이것들도 부사적이다. 건강한 생활이란 생활의 다른 여러 양식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서 달성할 수 있는 어떤 것은 아니다. 사람은 그의 생활과 유리되어서가 아니라 그의 생활속에서 건강한 것이며, 이것을 열광자로서 추구하고, 독립되고 격리된 선으로서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행동의 부분으로서 적절하게 성취하는 것이다.

듀이에 의하면, 도덕적 선과 목적들은 다만 어떤 것이 수행되어야 할 때, 어떤 결함이나 악이 있을 때에만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사태에서의 선은 시정되어야 할 그대로의 정확한 결점과 곤경의 기초위에서 발견되고, 투사되고, 달성되어야 한다. 듀이에 있어서 도덕이란 요리책에 있는 조리표를 따라하는 것처럼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치는 내재적인 목적과 도구적인 목적으로 구분될 수가 없다. 나아가 덕목과 같은 도덕적 선은 건강이나 물질적 부와 같은 소위 자연적 선과 유리될 수 없는 것이다. 실험적 논리를 도덕문제에 적용할 때, 도덕의 적절한 개념은 현존하는 악을 개선하는데 공헌하는 정도에 따라서만 선이라고 판단케 한다. 과학이 인간문제해결에 전심할 때 그것은 도덕적이고 인간주의적인 것이 된다.<sup>20)</sup>

19) John L. Childs. "The Civilizational Functions of Philosophy and Education," Douglas E. Lawson and Arthur E. Lean ed., *John Dewey and The World View*, Carbondal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1964, p.3.

20) John Dewey, *Op. Cit.*, p.173.

과학의 의식이 인간가치의 의식으로 충만될 때, 지금 인류를 무겁게 억압하고 있는 가장 큰 이원론, 즉 물질적, 기계적, 과학적인 것과 도덕적, 이상적인 것과의 사이에 균열이 붕괴될 것이다.

이와같은 도덕개념이 악의 문제 및 낙관주의 대 비관주의라는 문제에 던지는 의의는 무엇인가? 듀이에게 있어서 악의 문제는 더 이상 신학적, 또는 형이상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간 삶의 해악을 경감시키고 될 수 있는 한 제거시키는 실천적 문제로 인지된다.<sup>21)</sup> 따라서 세상은 악이라고 주장하는 극단적 비관론과 이 세상은 이미 모든 세상에서 있을 수 있는 가능한 최선의 세상이라고 말하는 극단적 낙관론의 양 극단을 재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자는 교정할 수 있는 특수한 악의 원인을 발견하고, 세상을 개선하려는 모든 노력을 마비시켜 버리는 반면, 후자는 현존하는 악을 무시하고 있다. 따라서, 양자는 모두 개혁과 개선의 지성적 노력을 차단한다. 선의 적극적인 수단과 그 실현에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악의 근원을 제거하며, 정신의 갱신과 재창조를 실현하는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만 한다. 이것이 참된 행복의 원천이며 성공적, 계속적, 진취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행복이라고 듀이는 보았다. “궁극적 목표로서의 완벽이 아니라 완성해가고 성숙해 가며, 세련해 가는 끊임없이 지속적인 과정이 인생의 목적이다.”<sup>22)</sup> 따라서, 듀이에게 있어서는 성장 그 자체만이 유일하게 도덕적 목적이 된다.

마지막으로, 듀이는 교육을 재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듀이에게 있어서 교육은 도덕과정과 동일시 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양자가 모두 경험의 보다 나쁜 것에서 보다 나은 것으로 지속적인 경험개조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육은 후일의 어떤 것을 위한 준비가 아니다. 현재에 있는 가능한 정도와 종류의 성장을 현재에서 부터 얻는 것이 교육이다. 지식과 기술의 습득은 목적이 아니라 성장의 증거이며, 그것을 계속하기 위한 수단이다. 아동과 성인 모두의 도덕적 과업은 경험을 계속적으로 더욱 풍요하게 하는 것이며, 완전한 경험은 사회적 상호의존에서 부터 온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생명이 있는 한 인간의 교육은 계속된다. 모두 사회제도는 성, 계급, 인종에 관계없이 인간개개의 잠재능력을 개현하고 발전시키는 것, 다시 말해서, 모든 개인의 가능성을 가장 충실하게 발전시키며 교육하는 것을 제일의 기능으로 삼는다.<sup>23)</sup>

민주주의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한 도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모든 정치제도와 산업조직의 최상의 검증은, 그것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전반적인 성장에 공헌하는 바에 있다는 것을 결심하는데서 찾을 수 있다.

21) *Ibid.*, P.177.  
22) *Ibid.*  
23) *Ibid.*, P.186.

## 8. 사회적 개조

실험적 철학은 사회와 개인간에 확립되어 있는 세 가지의 대안적 관계가 전체적인 조망을 구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서 사회철학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들 전통적 대안들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는 개인을 봉사하기 위해 존재한다.

(2) 개인은 사회를 봉사하기 위해 존재한다.

(3) 사회와 개인은 유기적이고 상관적인 것으로 각자는 상호 봉사하며 봉사를 받는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되고 분석되어 왔다. 그러나, 오직 마지막의 입장만이 한편으로 극단적 개인주의와 다른 한편으로 극단적 사회주의에 대한 모든 반대점을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듀이는 이 세가지 이론들이 모두 어떤 공통된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즉 이들은 모두 특수한 모든 사태에 적용되기를 바라는 일반 개념의 논리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탐구를 부인한다. 그 이유는 세 가지 이론이 모두 모든 특수사태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필요한 것은 국가일반, 가정일반, 법률일반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이 구체적인 인간존재, 또는 저 개인집단이며, 특정한 시간과 장소의 주어진 제 조건하에서 작용하는 그대로의 이 혹은 저라는 특정한 사회조직에 대해 기울이는 주의이다. 그렇지 않으면 구체적인 사태를 포괄적인 일반화에 부착되어 다니는 매력과 위엄과 의미, 가치로서 덮어 가리워, 구체적인 사태의 결함을 그럴듯하게 은폐하고 심각한 개혁의 필요성을 덮어버리는 경향이 생기게 된다고 듀이는 보았다. 다시 말해서, 적절한 사회철학은 구체적인 개혁과업에 이용될 수 있는 필요한 가설을 제공함으로써 구체적인 사태에서의 실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를 도와야 한다. 듀이의 관심은 개인을 단순히 ‘새로운 자아’로 바꾸는 윤리적 변혁이 아니라 모든 사회의 변혁이었다.<sup>24)</sup> 철학개조의 참된 의미는 사회적 상황의 개조에 사용되는 방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sup>25)</sup>

제도, 개성, 국가, 자유, 법률, 질서, 진보 등등의 일반적 개념의 어떤 세련보다는, 특수한 사태들의 개조와 관계되는 방법의 문제에 철학적 개조의 진정한 의의가 있는 것이다.

전통적인 사회철학이론을 더 조사해 들어가 보면 개인에 대한 그들의 개념에 오류가 있음을 볼 수 있다고 듀이는 주장한다. 그것은 개인을 주어진 어떤 것, 이미 거기에 있는 어떤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은 영합해 주어야 할 것, 그의 쾌락은 확장 되어야 하고 그의 소유는 증가되어야 할 어떤 존재일 도리밖에 없다. 개인을 이미 주어진

24) Harry M. Campbell, *Op. Cit.*, P.67.  
25) Dewey, *Op. Cit.*, P.193.

어떤 것으로 간주할 때, 그에게 혹은 그를 위하여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외부적 인상이나 소유물의 양식을 취할 도리밖에 없다.<sup>26)</sup> 실험적 접근은 개인을 사회조직, 법률 및 제도에 의해서 창조되거나 발전되어야 할 어떤 것으로 본다. 개인은 주동성(initiative), 창안성, 책임성 그리고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 등, 요컨대 성취에 의해서 발전한다. 이들 성취들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용될 용도에 따라 상대적이며, 이 용도는 다시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개인을 이러한 방식으로 보게 되면 개혁이 개인에게서 시작되어야 하느냐, 아니면 제도에서 시작되어야 하느냐 하는 논의는 모든 의미를 잃게 된다. 자아나 개성의 발달은 한 능동적인 과정이며, 인간의 사회제도를 변혁시킴으로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제도는 그 교육적 효과에서 그것이 함양하는 개인의 형태에 따라 해석된다. 그래서 각각의 사회조직의 의미는 그 특수한 사회조직의 자극적, 함양적, 양성적인 구체적 힘에 의해서 결정된다. 다시 말해서 도덕적 개선과 경제적, 정치적 개혁은 함께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정치와 도덕의 오랜 분리는 그 뿌리에서부터 폐기”되게 된다.<sup>27)</sup>

“사회적”이라는 말도 그러하다. 사회란 한 단어이지만 그것은 무한히 많은 사물을 포함한다. 그것은 하나의 단일실체가 아니라 많은 연합들, 즉 공통경험의 보다 나은 성취를 위해 상호연합적인 교제와 행동으로 결합된 연합이다. 사실상, 사회는 연합의 단순한 집합 이상이다. 사회는 경험, 가치, 정서 등이 상호공유될 수 있게 하는 연합의 과정이다. 따라서, 하나의 조직은 결코 그 자체로서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효과적인 접촉을 증대시키며, 그들의 교류를 최대의 결과를 맺을 수 있는 양식으로 인도해 주는 수단이다. 민주적 사회는 조직과 공유된 활동을 최대한도로 허용하고 격려하는 사회이다.

사회는 그 모든 구성원들이 그들의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즉, 주도성, 계획, 성취, 인내력 등 다양한 개인의 능력을 그 감금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시켜줄 때 가장 강하고 가장 안정되며, 가장 진정으로 민주적이 된다. 듀이에게 있어서 인간본성이나 인격은 각 개인이 그가 속해 있는 사회집단의 목적과 정책을 형성함에 있어서, 그의 능력에 비례해서 책임을 공유할 수 있을 때 가장 완전하게 양육되고 교육될 수 있다.

듀이는 사회생활이 점점 더 풍요해지고, 점점 더 보상적이 되어감에 따라 관념 및 신념들은 그 자체가 심화되며, 보다 충분히 전달되어질 것으로 보았다. 이것들은 도덕으로 흡수되어질 것이고, 종교적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다. 이 종교적 정신은, 그것이 인간의 과학적 신념과 그의 일상의 사회적 행동과 조화를 이룰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술과 문학에 의해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더욱 더 자극되어질 것이다. 종교, 예술, 그리고 문학은 일상적 활동의 가치에 대한 신앙에 의해서, 그리고 사회적, 과학적 변화의 방향을 지성적으로 따를 수 있는 용기에 의해서 자극될 수 있는 고귀한 것이다. 그래서 듀이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sup>28)</sup>

만약 철학이 구체적 사태의 진행과 협동하고, 일상사항의 의미를 명석하고 조화

26) *Ibid.*, p.194.  
27) *Ibid.*, p.197.  
28) *Ibid.*, pp.212-213.

롭게만 한다면, 그 때에 과학과 정서는 서로 깊이 침투할 것이며, 실제와 상상은 서로 포용할 것이다. 시와 종교적 감정은 강제없는 인생의 꽃이 될 것이다. 현대의 사태 진행의 의미의 명료화 및 계시를 촉진하는 것이 과도기 오늘날의 철학의 과업이며 문제이다.

## 9. 고찰 및 결론

지금까지 철학의 개조에 관한 듀이의 사상을 살펴보았다. 철학의 개조에 대한 듀이의 사상은 제일차 세계대전 이후에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충격을 받아 빅토리안적 낙관주의와 자동적인 진보, 조화, 평화에 대한 신념에서 깨어났다. 듀이의 표현 그대로 “제일차 세계대전이 일찌기 없었던 낙관주의의 시대, 즉 국민과 국민들 사이, 계급과 계급 사이의 상호이해는 계속 진보되며, 따라서 조화와 평화에의 확실한 동향이 있다고 흔히 넓게 믿었던 그런 낙관주의의 시대에 결정적인 충격이었다.”<sup>29)</sup>

이것은 현재의 일로부터 움추려 들어 과거의 어떤 절대적인 것에 도피처를 찾으려는 욕구를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듀이는 시대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만들어진 지성적 사고의 개조는 정 반대의 특성을 띤다고 느꼈다. 즉, 그것은 정치적, 산업적, 과학적 혁명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또 만들어 지고 있는 엄청난 변화와 혼란을 직면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듀이는 생각했다. 인류가 이와같은 거대한 변화에 적응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또 이러한 변화로부터 고통이 아니라 이득을 본다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실이 철학개조의 필요성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고 보았다. 듀이에게 있어서 철학의 주요 기능은 편견으로부터 인간정신을 해방시켜, 자기 주위의 세계에 대한 지각을 확대시켜 주는 것이다. 철학의 역할은 시대와 사회의 도덕적, 사회적 논쟁들을 분명히 하고, 그것을 다루는 도구가 되는 것이다. 개발되어야 하는 것은 인간의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일들로 탐구를 지향해 갈 수 있는 지성적 도구이다.

이것은 물리적, 생물학적 세계의 이해를 위해 발전된 동일한 과학적 방법을 인간문제(도덕)에 적용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다.<sup>30)</sup>

기획해야 할 개조란 어떤 기성품으로서의 지성을 적용하려는 개조가 아니다. 자연의 본질에 관한 이해를 오늘날의 고도에까지 이끌어올린 그런 방법(관찰, 가설로서의 이론, 실험적인 검증이라는 방법)을 어떤 인간적, 도덕적인 과제의 탐구에서도 고취해야 할 일이다.

17세기로부터 19세기에 이르는 철학자들이 현대과학의 위대한 공헌을 위한 길을 개진한

29) *Ibid.*, p.vi.  
30) *Ibid.*, p.ix.

것과 같이, 과학은 철학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아주 포괄적이며, 아주 관철적이고 또 광범하고 보편적인 탐구방법을 고안해 내었다. 이 방법은 탐구와 발견, 과정과 성취를 결합시키며, 성공과 실패로 부터 배운다는 점에서 자기 교정적이다. 보다 나은 “새로운 것”이 밝혀짐에 따라 보다 빈약한 “옛것”은 포기되는데, 이것은 계속적인 탐구와 실험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행위에 있어서 진실하거나 선한 것은 실험적으로만 결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듀이는 보고있다.

듀이에게 있어서 실험적, 도구적, 실용주의적 접근은 기계적인 어떤 것 이상이다. 그것은 불변하고 고정된 원리, 행동으로 부터 지성을 분리시키는 것에 대한 반대를 의미한다. 그것은 자유로운 지성, 작용적 사실(working hypotheses), 그리고 개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실험주의는 행동의 계획을 자연과학에 있어서와 같이 후속하는 결과에 의해서 지지되거나 거절되어야 하는 이론으로 생각해야 함을 의미한다. 계획은 미리 결정될 수가 없다. 문제가 규정되어야 하고, 자료가 수집되고, 잠정적 해결책이 발전되고 그것이 시험되어야 하며, 또한 실험적으로 어떤 타당성에 도달해야 한다.

나아가, 듀이에게 있어서 이른바 “일반적 관념”으로 일컫는 잘못된 개념은 반드시 거부되어야만 한다. 이것은 보편적 원리 또는 추상에 대한 신념이며, 일반적 사물(물자체)에 대한 사고이다. 듀이에 의하면, 각각의 상황은 그 자체로서 특수하게, 구체적으로 다루어져야만 한다. 지식은 조작적, 실험적이며, “지성적으로 행사되는 행동”으로 정의될 수 있다. “개인”과 “사회”는 그 의미에 있어서 고립되고 고정된 실체들이 아니다. 이들은 모두 과정(process)에 있다. 즉, 전자는 사회적 상황에 의해서 창조되어지며, 후자는 사회적 상황으로 연합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철학적 개조의 열쇠는 개인을 발전시키고, 그들의 성장을 촉진시키며, 이들 개인들이 상호결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회를 증진시키는데 사용되는 사회적 조직과 방법에 달려있다고 듀이는 보았다. 이것은 실험적 실용주의란 인간과 그의 활동에 대한 신념이라는 민주적 이상을 철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 Bibliography

- Bayles, Ernest E., *Pragmatism in Education*, New York : Harper & Row, Publishers, 1966.
- Campbell, Harry M., *John Dewey*, New York : Twayne Publishers, Inc., 1971.
- Childs, John L., “The Civilizational Functions of Philosophy and Education,” Douglas E. Lawson and Arthur E. Lean ed., *John Dewey and The World View*, Carbondale :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1964.
- Dewey, J., *Democracy and Education*, New York : The Macmillan Co., 1916.
- \_\_\_\_\_, *How We Think*, Boston : D.C. Heath & Co., 1910.
- \_\_\_\_\_, *Reconstruction in Philosophy*, Boston : Beacon Press, 1957.
- Dupuis, Adrian M. and Nordberg, Robert B., *Philosophy and Education : A Total View*, Milwaukee : The Bruce Publishing Company, 1964.
- MacDonald, J., *A Philosophy of Education*, Glenview, Illinois : Scott, Foresman and Company, 1965.
- Wirth, Arthur G., *John Dewey As Educator*, New York : John Wiley & Sons, Inc., 1966.